



'위안부 소녀상, 같은 아픔 가진 중국 소녀와 만나다' (서울=연합뉴스) 이정훈 기자 =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가로공원에서 제막식 뒤 공개된 한·중 평화의 소녀상. 한국인 소녀상은 조각가 김운성 씨와 김씨의 아내인 김서경 씨가, 중국인 소녀상은 중국의 판이훤 칭화대 미술학과 교수와 영화제작자 레오스용 씨가 제작했다.



가. 측정물 : 소녀상 2종, 의자(역설계)

나. 측정장비 : 4DL RX30 (독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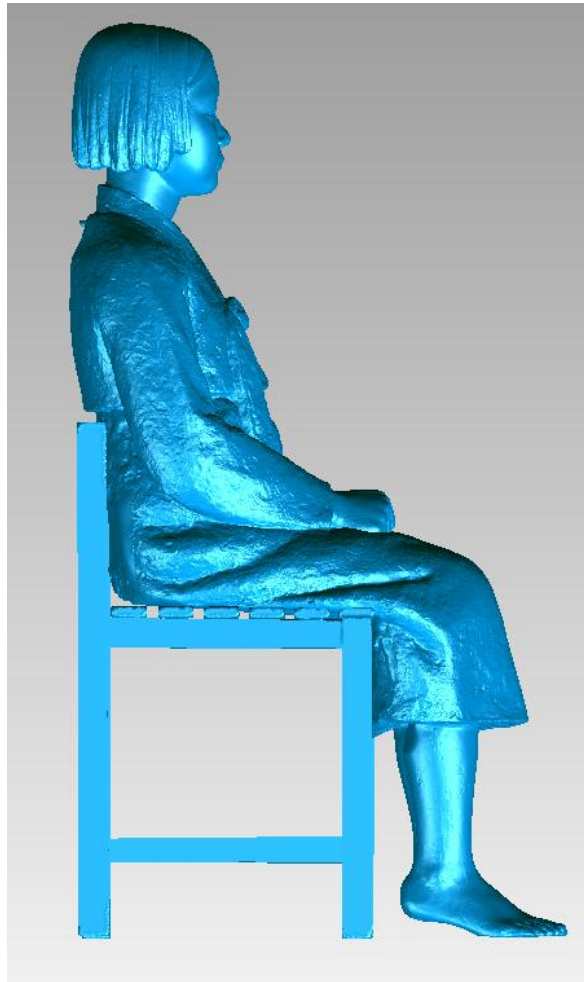
다. 제공 데이터 : STL

라. 측정시간 : 1일

후처리 : 3일



소녀상 : 한국



소녀상 : 한국



소녀상 : 중국



소녀상 : 중국

